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서초구

인재개발원 잣나무숲길 ¹⁰

잣나무 향을 타고
놀이의 세계로!



걷는구간 인재개발원 야외화장실 뒤 쉼터→매실밭
→육각정자→테니스장→숲속교실
→유아숲→잣나무 숲길→종합운동장

걷는거리 3km

소요시간 1시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잣나무 숲길의 '숲속 교실'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열었던 곳으로, 2016년 서울시에서 발굴한 '사색의 공간'으로 선정되었다.

서초구는 먼 옛날부터 전국 각지로 떠나는 사람들과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사통팔달의 도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버스터미널이 있고 지하철 노선만 해도 여섯 개가 거쳐 간다. 게다가 서울에서 얼마 안 되는 자연이 풍부한 곳 중 하나다. 서초구의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청계산과 우면산이 있다.



‘서초구의 허파’인 우면산은 배를 깔고 졸고 있는 소를 닮았다는 지명 유래가 따른다. 관악산 줄기의 같은 흙산이지만 청계산은 618m 인데 반해 우면산은 293m로 낮고 순한 산세를 지녔다. 우면산을 오르는 등산로마다 산행길이 짧고 평탄한 데다 나무로 만든 계단과 숲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편안한 차림으로도 오르기 쉽다. 꼭대기 소망탑은 해돋이 명소뿐만 아니라 전망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우면산 등산로는 예술의 전당 뒤편으로 오르는 길과 남부터미널 근처 인재개발원 뒤편으로 오르는 길 등 여러 코스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면산의 능선에 해당하는 인재개발원의 뒷산에 올라가면 우거진 잣나무 숲에서 나오는 솔 향이 코를 찌른다. 우면산의 다른 등산로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더 한적하고 평온하다. 잣나무 숲길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쉼터와 육각정자도 나오고 강의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숲 속 교실도 나타난다. 이렇게 정적으로 산책의 묘미를 즐겼다면 ‘유아숲’에서는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 등 자연 속에서 놀 거리를 찾으며 신나게 놀아보자! 숲은 우리가 그 속에서 명상이나 사색을 즐길 때뿐 아니라 자연을 만지고 느끼는 순간에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아주 고마운 공간이다.



-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4-1번 출구로 나와서 약 15분 정도 걸으면 인재개발원이 나온다. 인재개발원에서 출발지인 야외화장실 뒤 쉼터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 ☎ 02-3488-205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인재개발원 유료 주차장 이용
- 🚻 인재개발원에 화장실 있음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는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